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snuarta@naver.com 밴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6월 18일 '2024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정기총회'를 강원도 봉평 허브나라농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을 비롯해 김신현(58회화), 한영옥(56회화), 손문자(62응미), 정옥란(62응미), 변희준(63조소) 고문, 임원 및 회원, 특별 초청된 모교 학생회 윤솔하(23동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도현(16디자인)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권영걸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수정 사무국장의 2023년도 사업보고, 신지영 사무차장의 2023년도 회계보고, 변영혜(78회화) 부회장의 2024년도 사업계획보고 후 이종복(62응미), 김종선(74회화), 김소선(63조소) 감사의 감사보고, 기타토



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영걸(71응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동창회를 위해 도움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대미대동창회갤러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임기 중 이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복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1년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 및 회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여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23년도에 활동이 많았음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점점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 갑니다. 우리의 동창회가 체제가 잘 잡혀가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총평했으며, 사단법인 S-아트플랫폼 김소선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회계보고를 받고 정밀하게 검토하였으나 부당 입출이 없으며, 모든 사업이 바르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총평하였다. 또한 권회장은 그동안 동창회홈페이지제



작등 재능기부를 통해 본회에 도움을 많이 준 김종삼(96서양) 동문에게 감사장을, 타전공 서울대동문으로 활발히 작품활동 중인 김다현(16도시계획) 작가에게 명예회원 위촉장을 수여 하였다. 한편 이날 허브나라농원의 이지인(92서양) 동문이 총회장소를 제공하였고 선우항(90서양) 동문이 음료를, 김신현, 손문자 고문이 간식을 제공했다,

본회소식



야식지원사업 성황리에 종료

본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졸업전 및 과제전 준비로 야간작업을 하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야식지원사업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회는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2019년부터 매학기마다 야식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번 학기에도 화, 목요일에 본회 서울대오피스에서 컵라면과 구운계란을 제공했으며, 학생회는 홍보와 라면박스 운반을 함께 했다. 첫날 오전부터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로 준비한 양이 일찍 동났으며, 소문이 퍼지면서 매회 150여명의 재학생들이 방문해 야식지원을 받았다.

미술실기강좌 여름특강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S-미술아카데미의 여름특강이 오는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8주 완성으로 진행된다. 여름특강은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S-미술아카데미 실기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교육수준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좌별 15명 이내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

반인 대상 교육 경력이 많은 동문 강사들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기초소묘(강사 김호준)', '반려동물그리기(강사 김종선)', '태블릿PC드로잉(강사 이필두)', '여백과 묵향의 힐링-사군자.문인화(강사 변영혜)' '드로잉으로 배우는 미술사(강사 서길현)' 등 6개 강좌이다.

강좌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 신청기한: 7월 7일까지
수강문의: 02-877-8065(평일10~17시) 문자신청: 010-8605-8065

회장동정



순천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참가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장) 회장이 지난 6월 14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서 권회장은 "우리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하여,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미술아카데미 2024 여름특강 수강생 모집



2024 미술실기 아카데미 여름특강 일정 - 8주 완성



화	수	목
10-13시	14-17시	
기초소묘 (삼각뿔에서 인체드로잉까지)	드로잉으로 배우는 미술사 (이론과 실기)	태블릿PC 드로잉 (Sketchbook 앱)
김호준	서길현	이필두
반려동물 그리기 (한국화 영모화)	자유크로키 (자유창작)	여백과 묵향의 힐링 (사군자+문인화)
김종선	강사없음	변영혜

접수기한
7/7(일) 까지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납부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7/9(화)~8/29(목) 8주 / 공휴일 휴강(보강 진행)
오전반: 10~13시 / 오후반: 14~17시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9길 16 백악미술관 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신청순 접수, 복수신청 가능, 10명미만 폐강)

수강료
강좌별 24만원
*자유크로키 강좌 16만원(모델료 별도)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커뮤니타->공지사항)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봄학기 미술실기강좌 종강

본회가 개설한 S-미술아카데미 '봄학기 미술실기강좌'가 지난 6월 27일 종강했다.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S-미술아카데미는 지난 3월 11일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백악미술관에 실기 강의실을 마련해 '2024 봄학기 미술실기강좌'를 시작했다. 봄학기 강좌는 일반인 대상 교육 경력이 풍부한 강사들의 5개 강좌가 진행되었으며 교육수준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좌별 15명이내로 수강생을 모집했다. 다음은 종강을 맞아 수강생들의 수업에 대한 소감을 모아봤다.



여백과 묵향의 힐링-사군자. 문인화(강사 변영혜)

박호진 회원은 "동창회에서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뜻 깊었고 훌륭하신 선생님과 좋은 선배들과 함께 취미생활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차미란 회원은 "서예전시로 유명한 백악미술관의 쾌적한 공간에서 사군자와 문인화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군자이지만 최고의 선생

님으로부터 꼼꼼히 지도받으면서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취미생활로 정말 좋을 것 같고 붓 끝에 집중하는 동안 모든 잡념을 떨쳐내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수강생 모두 초보에서 시작하였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회원은 "자상한 실습 강의였습니다. 간간이 개별지도 해주셔서 잘못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컸습니다."라고 했으며, 또다른 회원은 "수묵화 같은 미술은 도제식 없이는 배울 수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바로 배움입니다. 훌륭한 선생님과 귀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라고 감사함을 밝혔다.



나의이야기와그림-그림책워크샵(강사 곽영권 . 한성원)

박소영 회원은 "처음 이 수업을 시작할 때는 왜 내 이야기를 그냥 풀어내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으나 수업이 깊어지면서 점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신탐험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림과는 또 다른 멋진 전혀 다른 세계 놀라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대항해를 앞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는 내 마음의 심연에서 보물을 캐낼지도 모른단 꿈도 가져 봅니다."고 표현했다.



프리페인팅-자유창작화수업(강사 임철순)

회원들은 "좋은 교수님과 함께 1학기 수업 즐겁게 하게 하셔서 happy 합니다. 모두에게 행복과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너무 만족스러운 수업이어서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간 듯 합니다. 커피와 간식, 좋은 음악까지 더해져 항상 즐겁게 수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은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업 내내 즐거웠으며 인사동 오는 길이 기쁨입니다. 실력 있으신 교수님을 만나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에 인생 황혼기가 더욱 풍요롭고 다양해진 듯합니다. 새로운 아트의 세계, 완성도 넘치는 수업!" 이라고 했고, 다른 회원은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프린트를 하기까지 방법들도 꼼꼼히 가르쳐 주셔서 매우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라고, 또 한 회원은 "초보자에게도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놀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유화-초중급(강사 안성규)

이태림 회원은 "잘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 안정된 수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도전하는 인물화 지도가 인상적이었고 처음 경험하는 작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수의 참여자들을 일일이 개인지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으며, 신선혜 회원은 "유화를 처음 그려보는데 맞춤형으로 봐주셔서 좋았어요.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업 외 실습용으로 공간을 열어주시는 시간도 있었음 좋겠어요. 그림 옮기기가 번거로워 여기에 와서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한선 회원은 "15주 동안의 그림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교수님께서 현직 작가이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보니 이론과 실기의 기초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며, 이태주 회원은 "인생 유화를 최고의 작가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창조인생 Creative aging이 실현되길 바라며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소망했다. 한편 본회는 S-아카데미 여름특강-8회 완성을 개설하여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업을 진행한다.(수강신청 010-8605-8065)



테블릿PC로 그리는 유화&수채화(강사 이필두)

"새로운 세계를 접한 느낌으로 낯설어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계속 탐험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라고 한 회원은 소감을 밝혔고, 다른 회원은 "이 수업 덕분



즐거운 총회, 허브나라 나들이



본회는 지난 6월 18일 그동안 도움을 주신 임원 및 회원과 사무국 직원, 모교 학생회 임원 등 58학번부터 23학번까지 40여명의 동문들과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에 있는 허브나라농원을 다녀왔다. 전세버스 편으로 허브나라농원에



도착 한 일행은 눈앞에 펼쳐진 농원의 모습에 모두들 즐거운 마음이었다. 먼저 농원 내 프레스코갤러리를 방문하여 선우항(90서양) 동문의 프레스코화에 대한 제작 기법등 설명을 듣고 김종선, 변영혜, 이지인 동문의 작품을 감상하였다. 프레스코화를 보고나오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농원내 자작나무식당으로 찾았다. 부모님과 함께 허브나라를 운영하는 이지인(92서양) 동문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은 눈을 먼저 호강하게 했다. 허브나라에서 가꾼 허브꽃들로 예쁘게 장식된 허브꽃비빔밥과 허브전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동문들은 이날의 주목적인 총회에 참석하였다. 총회 후에는 각자 자유롭게 허브나라의 이곳저곳을 삼삼오오 모여 탐방하며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거나 스케치했다.



동문들은 솔바람숲의 소나무 그늘아래 시원한 흥정계곡물이 흐르는 장소에서 잠시나마 발을 담그고 즐거워 하였으며, 세익스피어가든 오두막 집을 구경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했다. 이어 사계가든 유리온실 등 다양한 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동문들은 가든카페에서 선우항 동문이 제공한 음료쿠폰으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허브티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으며 몇몇 동문은 허브티를 구매하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가족들과 이곳 팬션으로 놀러오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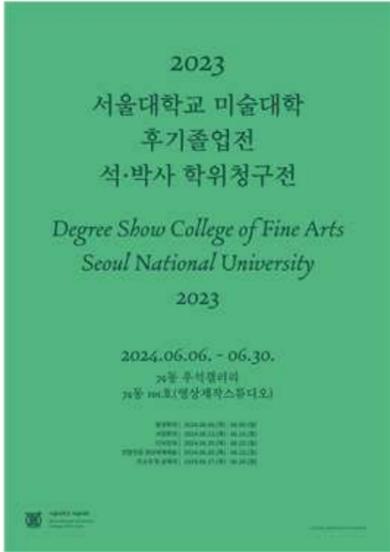
허브나라농원에서의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가는 길에 시작했던 동문들의 자기소개 릴레이가 이어졌으며, 이날의 소감을 함께 나누며 알차고 보람되었던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본회는 이번 허브나라농원에서의 즐거운 총회를 함께했던 동문들과 오는 7월 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평창동 아트스페이스퀼리아에서 '그림속 화원'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개최 할 예정이다.



모교소식



후기졸업전 및 석·박사학위청구전



모교(학장 정의철)는 지난 6월 6일부터 30일까지 2023 후기 졸업전, 석·박사 학위청구전, 그리고 과제전을 개최했다. 졸업전 및 청구전은 서울대 74동 우석갤러리, 74동 101호(영상제작스튜디오)에서 전시되었으며, 과제전은 50, 52동, 74동 우석갤러리 3 전시실에서 진행되었다. 전시 일정은 동양화과가 6월 6일에서 9일까지, 서양화과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디자인과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연합전공 영상매체예술이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조소과 및 공예과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이 모교의 졸업전, 청구전, 그리고 과제전을 보기 위해 발걸음했다.

SNU Art&Design 10-10 Project 특강



모교는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대 49동 215호 강의실에서 [SNU Art&Design 10-10 Project]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의 강연자는 이정주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부교수 및 부학장이다. 이정주 교수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헬스, 웰빙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계 경험과 더불어 LG 전자, 메타 등에서 프로젝트매니저, 리서처로 근무하였다. 이번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증강 현실 등의 기술 개발에 따라 미래 사회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술이 불러올 변화에 대해 인간의 관점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기술 개발에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싱가포르는 미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데 디자인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혁신 국가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서비스 디자인(Service Design), 협력 디자인(Co-design), 디자인 미래(Design Futures) 방법이 싱가포르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헬스케어, 일의 미래 등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뷰카 (VUCA) 시대,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차세대 디자인 리더 육성을 위한 Masters of Design in Integrated Design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라티파 에샤크 아티스트토크



모교 조형연구소와 페이스갤러리가 주관하는 라티파 에샤크(Latifa Echakhch)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가 지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울대 74동 오디토리엄(2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은 라티파 에샤크의 개인전 'Les Albatros'와 연계된 아티스트 토크로, 에샤크 작가는 사회적 편견, 모순 및 고정관념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의 예술적 실천에 대해

소개하였다. 현재 스위스의 도시 마르티니와 베비에서 살고 있는 라티파 에샤크는 1974년 모로코의 엘 크난사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세 살이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프랑스로 이주하여 에콜 수페리에르 드 그르노블(Ecole supérieure d'Art de Grenoble)에 다녔고 나중에 국립 세르지 퐁투아즈(Cergy-Pontoise)와 리옹 국립 미술학교(Lyon National School of Fine Arts)에서 학위를 받았다. 에샤크는 2013년 마르셀 뒤샹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정모 작가초청특강



모교 서양화과의 '동시대 미술관 현장' 수업 초청 작가 특강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대 74동 201호 오디토리엄에서 진행되었다. 초청 작가는 김정모 작가로, 강의명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이었다. 김정모 작가는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글라스고 스쿨 오브 아트(The Glasgow School of Art)에서 MFA를 전공했으며, 홍익대에서 미술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김작가는 설치를 기반으로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해 미적 체험을 전달하는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미술계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들의 작동 방식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제도와 현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그 합의의 이면에는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한다. 한편, 그는 '아트스펙트럼2022'(리움미술관, 2022), '아무도 모른다'(김세중미술관, 2022),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경북대미술관, 2022), '운명상담소'(일민미술관, 2021), 'Rainbow Tomorrow'(포스코미술관, 2021) 등의 전시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으며, 베를린에 위치한 아고라 콜렉티브(2015), 한국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2017) 등 다수의 레지던시에 입주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다.

아라이 케이 작가초청강연



모교 동양화과 주최 아라이 케이 (Arai Kei)작가 초청강연이 지난 6월 4일 화요일 오후 서울대 74동 201호 오디토리엄에서 진행되었다. 강연 제목은 Arai Kei (荒井 経), '나의 작품세계와 현대

일본화(日本画)의 경향 「自作の歩みと現代日本画の傾向」으로, 일본어로 진행되고 순차 통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강연 초청 작가 아라이 케이(荒井 経)는 일본 도치기현(栃木県) 출생으로 쓰쿠바(筑波)대학 예술전문학군 일본화를 전공했다. 도쿄예술대학에서 문화재 보존수복 일본화 전공으로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Salon de printemps」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문화재 보존수복 일본화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술대학 중고장터



모교 학생회(회장 윤솔하) [ART:I 아디]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모교 아크로에서 '2024 미술대학 중고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모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고장터행사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고, 질 좋은 재료와 물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고장터 물품 등록 폼'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날 중고장터행사는 학생회에서 음료도 준비해 나눠주는 등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잘 마무리되었다.

서울대소식



현충일 맞아 추모행사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 6월 5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교내 문화관 대강당에서 전몰동문추모비에 참배하고, 서울대학교 보직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신규임용직원 특강

서울대학교는 지난 6월 4일 신규임용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 '대학의 미래와 서울대학교 혁신방안'을 개최했다.

'체중관리를 위한 건강한 식사법' 강의

Advertisement for a lecture on healthy eating for weight management, including details on date, time, and location.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가 '체중관리를 위한 건강한 식사법' 강의를 오는 7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화상회의 플랫폼 Zoom으로 개최한다.

진료소는 설명했다.

예술계 글쓰기 특강 '작가노트 쓰는 법'

Poster for a writing workshop titled 'How to Write a Writer's Notebook' featuring a speaker's bio and event details.

서울대 기초교육원 글쓰기지원부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예술계 글쓰기 특강 '시각 예술가의 글쓰기: 작가노트 쓰는 법'이 지난 6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대 74동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미술관

미적감각 美的感覺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이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전시 '미적감각 美的感覺'을 개최한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책으로 들여다보는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Advertisement for a book exhibition on AI and natural intelligence, featuring book covers and event details.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지난 6월 14일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 컬렉션에서 '제7회 올라인 테마 도서전시-책으로 들여다보는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을 개최했다.

총동창회소식



서울대학교 나눔가족음악회 개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지난 5월 23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서울대학교 나눔 가족음악회'를 개최했다. 동문 가족과 교직원, 재학생 등 16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금난새(66작곡) 지휘자가 열정적인 연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금동문의 '클래식 도슨트',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젊은 연주자들의 호연에 무시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동문과 가족은 물론 재학생 240명, 교직원 120명을 포함해 1600여 명이 객석을 메웠다.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은 음악회에 "동문과 비동문, 신예와 원숙한 음악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주자를 모셨다"고 말했다. "음악회에서 박수는 격려고, 에너지고, 도네이션"이라는 금동문의 말에 동문들은 아낌없이 격려를 보냈다. 김회장과 유흥림 총장 등도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는 한 동문은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님도 좋아하셨다. 다른 데서 잘 볼 수 없는 기타, 하모니카 협주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 재단법인 관악회가 2000만원, 서병륜(69농공)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장이 1000만원, 윤철주(AMP64기)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장이 500만원을 후원했다. 그밖에 다수의 동문들이 거액을 협찬했다. 협찬금은 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6월 조찬포럼



총동창회가 지난 6월 13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동문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김동문은 긴 시간 폭넓게 국정을 돌봤던 원로답게 광범위하고 인상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적 저출생 대책으로 첫째, 보육 환경 혁신을 꼽았다. 보육학과 교육학을 공부한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준을 갖추도록 연수를 시키고 시험을 보게 하자는 게

김 동문의 주장. 보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질화하고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지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혁신이다. "주거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분양주택 공급 중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김묘경·김동호 동문 등 장학금 기부 이어져

총동창회에 김묘경(86간호) 동문이 지난 5월 28일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기부했다. 김동문은 서울여자간호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첫 장학금 기부다. 지난 5월에는 은사 고 심춘섭(50졸, 역사교육) 동문을 기리며 장학금

3억원을 조성 중인 김동호(62불문) 동문이 100만원을 기부했다. 결연장학금 2억원을 약정한 권호진(74토목공학) 동문은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희석(57농생물)·손경희(HPM 39기) 동문은 각각 1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총동창회 장학금은 정액 기부와 매월 약정 기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40명의 동문이 약정 기부에 참여 중이다. 지난 5월 중 이기용(68독어교육) 동문이 7개월 만에 1050만원의 기부 목표를 달성했고, 박성철(10치의학) 동문은 1년간 기부로 120만원의 장학금을 모았다. 기존에 총 1500만원을 약정 기부했던 김기선(63독문) 동문은 장학금 500만원 추가를 목표로 새 기부를 시작했다.



남한산성에서 등산대회

총동창회가 개최하는 등산대회가 지난 6월 5일 남한산성에서 열렸다. 59학번 김윤호 동문부터 87학번 정민섭 동문까지 3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등산대회는 성봉주(84체육교육) 산행대장의 인솔하에 남한산성 로터리에서 시작해 북문→서문→수어장대→영춘정→남문→로터리로 회귀하는 약 3.8km 코스로 진행됐다. 이대인(ACAD 55기) 동문은 "요즘 안보관이 너무 해이해졌다. 역사를 너무 몰라 또다시 위기가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다"며 오늘 등산대회에서 배우고 느낀 바를 집필 중인 책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69정치) 동문은 수어장대 옆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방문 기념 식수를 곱으며 "방문 날짜가 단기 4286년 9월 6일로 7월 27일 휴전협정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다. 인조만 기억하지 말고 이승만 대통령도 기억하자"고 말했다.

7월 바둑대회

【대회개요】

1. 일시 : 2024년 7월 7일 (일) 09:30 ~ 17:00
2. 장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 (75-1동)
3. 참가인원 : 150여 명 (동문, 재학생, 교직원)
4. 진행방법
 - 가. 단체전 : 단과대학, 지부별 5명(후보 1명 추가 가능)
 - 나. 개인전 : 접수된 기력에 따라 최강, A, B, C, D, E, F조 등 편성
 - *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대국 방법은 변형스위스 리그로 진행
 - * 출전 동문수에 따라, 조 편성은 융통성 있게 적용

【참가비 및 신청방법】

1. 참가비 : 2만원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2. 신청방법 : 참가를 원하시면 6월 19일(수)까지 참가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jang9869@hanmail.net, 팩스번호 02-703-0755)
- * 총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2024년도 동창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신청 가능
- 회비계좌 : 신한은행 140-001-180304 (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 【문의】** 총동창회 담당자 : 02-879-8204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임원	5만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회비입금내역(24.6.1-30)

- 부회장 회비** 공상구(97동양) 권대훈(90조소) 김순애(78응미) 김천일(71회화) 김춘수(77회화) 김황록(80조소) 이정연(71회화) 채혜선(82응미) 황숙현(69응미) 안필연(80조소)=25년도
- 이사 회비** 김덕용(81회화) 김유주(80응미) 김진경(70응미) 류지선(89서양) 서효숙(81회화) 안규철(73조소) 안수경(85공예) 양세혁(89조소) 장문걸(79회화) 최미영(70응미) 추명희(70조소) 홍미엽(76회화) 최영인(85공예)=23-24년도
- 일반 회비** 강재희(84동양) 김우석(05디자인) 김제웅(59조소) 박종규(69응미) 박혜경(78회화) 유희송(11디자인) 이흥구(85산미)
- 평생 회비** 김정아(17서양) 배정숙(74회화)
- 광고후원금** 박현주(91산디) 20만원 갤러리PAL(이영선) 20만원

유튜브에서 동창회소식 보세요~

본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창회 행사를 기록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youtube.com/@snuartalumni?si=8-bOgTTNecWwgOI2> 또는 유튜브브에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 검색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일 말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가로	F(인들)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100*80	6,6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탐방

허브나라농원

이지인(92서양)



허브나라농원은?

허브나라농원은 1993년에 오픈한 우리나라 최초 허브를 테마로 한 관광농원으로 지친 도시인의 심신에 활력을 재충전하는 향기로운 가족쉼터입니다. 허브나라는 직접 농사지어(1차산업) 수확한 허브들로 가공품을 만들고(2차산업) 레스토랑, 찻집, 펜션, 체험교실, 갤러리 등 허브를 활용한 서비스업(3차산업)도 제공하고 있는 성공적인 6차산업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브나라에서 지내며 기억에 남은 일은?

자연 속에 살다보면 자연의 큰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2006년 폭우로 농원 전체가 침수되고 고립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당시 임산부였고 부모님은 튀르키예 여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상황을 전화로 알려드리니 냉장고 안 고기며 식자재를 꺼내서 직원들과 잘 먹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전화도 전기도 끊기는 상황에서 씩씩하게 직원들과 잘 버티고 열흘 만에 감쪽같이 복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손이 보태어져 함께 역경을 헤쳐 나가는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브나라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동문가족이 각자 전공을 살려 농사와 조경은 어머니가, 건축설계와 목공은 아버지가, 예쁘게 꾸미고 만드는 일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농순이, 공돌이, 미순이 가족이라고 항상 소개합니다. 정원일은 농학을 전공하신 어머니가 진두지휘하시고 다른 가족들과 직원들도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보태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들이 가득 피어있고 주욱 흘러가는 정원이 아니라 하나하나 탐구하며 정원을 읽어가는 재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외국 사례들을 열심히 보러 다니고 외국서적도 직접 번역해 참고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노하우가 쌓여 우리에게 맞는 허브들과 식물들로 정원을 꾸미고 있습니다. 동물을 닮은 식물들을 모은 'Botanical zoo' 등 허브나라만의 독창적인 정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러 방문하십니다.

허브나라를 일궈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 이호순(61조선항공공학) 51세, 어머니 이두이(66농학) 49세 두 분 나이 합쳐 100세에 허브나라에 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꿈을 꾸는 여자, 꿈을 이루어주는 남자라고 두 분을 표현했었는데, 진취적인 어머니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양새라고 할까요? 저도 이제 스며들어 누구의 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사랑꾼이십니다.

부친은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고장 봉평의 효석문화제를 초창기에 함께 만들고 지역주민의 가이드를 자청하여 일본의 소바축제에 유명한 고장을 탐방하고 친선을 맺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선행사를 개최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강원도 나눔문화 확산도지사상, 대한민국 문화원상 (문화협력부문), 군민대상 등을 받으셨습니다. 허브나라농원의 원장으로서 명사로 선정되셨을 때 허브명인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듯하여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2016년에 선정되어 지금까지 지역명사로 활동 중입니다.

허브나라에서 이동문이 하는 일은?

가장 큰 일은 방문객들의 관람을 위해 정원을 예쁘게 꾸미는 일입니다. 가든, 식물 설명 등을 직접 그리고 칠해서 간판을 만듭니다. 허브박물관, 튀르키예갤러리 등 전시 큐레이팅, 인테리어, 제품 개발, 패키지 디자인, 구매, 홍보, 홈페이지, SNS 관리, 식음 메뉴 개발, 고객상담, 인력관리 등 농원 전반적인 경영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립니다. 일 년에 열두 장 허브나라의 모습을 수채화로 그려 달력으로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허브나라에 유명인들이 많이 찾았다는데?

처음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허브를 심고 가꾸기 시작했을 때는 이웃들이 잡초 같은 것을 심고 키운다고 걱정했습니다. 6시 내고향, 여성동아 등에 소개되며 시골생활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갑자기 많은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펜션도 만들고 손님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음악인 노영심님이 찾아와 너무 좋아해서 가족처럼 지내게 되고 페인트도 칠하고 농사도 돕고 그러다보니 이문세님, 윤석화님, 박정자님 등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 별빛무대는 이문세님이 2년에 한 번 '이문세의 숲속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기부공연을 11회까지 열어 이문세 전용극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영심님과는 '루나크리스마스'라고 음력으로 크리스마스에 자선바자회 및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스님은 산의 경사를 깎아 무리해서 짓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고



최대한 나무를 베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무가 있으면 지붕을 오리고 데크에 구멍을 뚫어 살렸습니다) 지은 건물들을 보시며 이런 곳에 살 자격이 있다며 많이 칭찬해주셨고 또 무더운 여름날이면 매년 오셔서

맛있게 허브아이스크림을 드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신 이시형 박사님은 98년에 글 쓰실 장소를 찾아 허브나라에 오셔서 청양당이라는 방에서 스무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이시형 박사님과는 튀르키예 지진 돕기운동을 계기로 한터친선협회로 활동하며 튀르키예갤러리를 허브나라에 만드는 등 허브나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일만 하며 지쳐가던 가족들에게 큰 환기구가 되어주신 분이시고,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더 넓은 시야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작가로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동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작지만 지역문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변화무쌍한 모습들은 삶에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창작의 새 아이디어가 필요하실 때, 지친 삶에 힐링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허브나라농원으로 오세요!

허브나라농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225
033-335-2902

오윤벽화작품 복원논의 오경환(76회화)

오경환 동문이 선배인 오윤(65조소1946~1986) 동문의 공공미술 설치작품인 대형 테라코타 벽화 '평화 복원에 관한 우리은행 측과의 논의'를 오는 7월 3일에 시작한다. 해당 작품은 현재 종로 4가 우리은행 금융센터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다. 1974년 건물이 지어질 당시 오윤 동문의 주도 하에 오경환 동문 및 동료들이 참여해 제작한 벽화로, 1층 전면부에 전돌(塼) 1000여개를 붙여 만들어졌다. 제작에 있어 오윤 동문은 무령왕릉 발굴 출토품인 전돌의 꾸밈새와 문양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그는 벽화 완성 직후 인터뷰(공간 2월호,



1975)에서 민중과 함께 교감하는 사회적 건축, 사회적 미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구적 논의를 담아 작품을 제작했음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벽화는 매연과 풍화로 박락 현상이 심해져 은행 측에서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이다. 오경환 동문이 작품의 소유주인 우리은행 측에 작품 훼손 문제에 관해 꾸준히 항의하여 시행되는 이번 논의는 작품 훼손 상황을 파악하는 조사 작업으로, 이후 현장 보수작업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미술저작·출판상 수상 정종미(76회화)

정종미 동문이 저서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으로 지난 6월 20일 김세중기념사업회 27회 한국미술저작·출판상을 수상하였다.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은 전통 회화에 대한 재료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안료의 미시적 분석과 전색제에 따른 물감의 종류별 특성, 기능, 사용 방식을 담은 재료 기법서이다. 시상식은 지난 6월 24일 김세중미술관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과 Dieu Donne 종이공방 등에서



수학했다.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에 재직했으며 색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전통미술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우리 미술 속의 벽화와 불화, 민화의 조형 언어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외에서 개인전 25회와 다수의 초대전을 가졌다. 2001년 이중섭미술상, 2012년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우리 그림의 색과 질, KSH 재료기법 활용 매뉴얼이 있다.

가트리브재단 그랜트작가 선정 신민식(84동양)

뉴욕에서 활동 중인 신민식 동문이 '2024 아돌프 앤 에스더 가트리브 재단 (Adolph and Esther Gottlieb Foundation)'에서 지원하는 그랜트작가로 선정됐다. 가트리브재단의 그랜트작가 지원프로그램은 총 47개국 994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국제적 프로그램이다. 2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온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활동작품을 비롯해 지적, 기술적, 창의적 발전 수준을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작가는 작품 활동비로 2만 5천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신동문은 "그동안 미술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간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매우 행복하다"며 "특히 세계 수많은 작가들이 모여 있는 예술의 메카 뉴욕에서 선정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 내 오랜 기간 내재돼 있는 인종차별과 불균형,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정착하려는 유색인종들의 모습을 작품으로 담아 볼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동문은 뉴욕 프랫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 후 뉴욕 스크올오브비주얼아트(SVA)대학원에서 회화 석사학위(MFA)를 취득했다.

돌고 돌고 Round and Round 류성실(13조소)

류성실 동문과 박다울(거문고 연주자), 유태평양(소리꾼)이 참여한 음악과 설치 미술 무대 '돌고 돌고'가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열린다. 거문고로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박다울,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 소리꾼 유태평양이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으로 주목받는 류동문을 만나, 청년의 시선으로 마주하는 삶의 한 바퀴, 그 끝에서 마주하는 공허함을 정형화되지 않은 무대어법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류동문은 대한민국의 토착성이 신자유주의와



충돌하며 생겨나는 다양한 사건에 주목한다. 박다울은 거문고 연주자를 시작으로 작곡과 공연, 거문고 브랜딩 공연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아티스트이며, 2016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유태평양은 여러 방송 등에 출연하며 활동하고 있다. 한편 류동문은 모교 조소과 졸업후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20년 가상의 스트리머 체리 장으로 출연해 온라인 스트리머의 콘텐츠 생산 방식을 패러디하는 'CHERRY BOMB'을 발표했고, 2021년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토니상 수상 김하나(07디자인)

김하나 동문이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뮤지컬 '아웃사이드'로 동료 맥데빗과 조명부분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동문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일하는 건 처음에는 꿈도 꾸기 힘들었다"라고 회상했다.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한국 출신 분들이 저 말고도 많다"며 언젠가 다 같이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겸손을 표하기도 했다. 브로드웨이에서 열정을 바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 말고도 많다는 김동문은 "제가 운 좋게 스타트를 끊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웃사이드의 무대



리뷰에서 "하나 김의 프로젝트는 무대를 관통하는 빛줄기를 보내 장면에 활력을 부여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동문은 모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UCLA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뉴욕링컨센터, 뉴욕퍼블릭시어터, 맨해튼시어터클럽 등 미국 각지에서 무대 디자인 작업을 하며 브로드웨이에서 프로젝트 디자인 부문의 최고봉에 오른 비주얼 아티스트다. 뮤지컬 아웃사이드는 S.E. 힌튼의 원작 소설과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동명 영화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이다.

달항아리와 김환기 김환기(교원)

김환기 전 모교교수 전시의 해설 강연 '아트스토리 M: 미술이야기 시즌2 - 달항아리와 김환기'가 마포아트센터 등지에서 지난 6월 25일, 2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됐다. 마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본 프로그램은 마포아트센터 공연장을 활용한 해설이 있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미술사학자 이태호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와 탁현규 전 간송미술관 학예사가 한국 고전미술 명작을 소개한 바 있다. 올해는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함께 리움미술관에 방문해 전문가 해설과



함께 작품을 직접 감상하는 특별 해설 순회도 진행됐다. 달항아리를 처음 '달항아리'라 명명하기도 한 김환기 교수는 모교와 홍익대 교수로 활동할 당시 돈이 생길 때마다 달항아리를 수집하고, "조형미에 눈 뜬 것은 도자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백자 달항아리에 심취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태호 교수가 25일 마포아트센터에서 해설 강연, 28일 리움미술관 체험순회를 진행했다.

원로작가 초대전 장혜용(69회화)

장혜용 동문의 초대전이 갤러리 Zen 청주직영점 2층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열린다. 30년간 교수로 일한 청주대에서 퇴직한 후 8년 만에, 청주에서 여는 이번 전시는 '엄마의 정원'을 모티브로 한 장동문의 연작 시리즈와 22년도 삼성생명 캘린더 수록작, 그리고 그 밖의 최신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중 '엄마의 정원' 연작은 다양한 동식물이 생장하는 숲의 이미지를 원색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대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는 작품이



다. 장동문은 수목화, 추상화, 민화 등 다양한 장르를 거쳐 현재의 작업 세계를 구축했다. 자신만의 감각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 끝에 한국의 오방색과 꽃, 나무, 새, 나비 등의 자연물을 작품에 담기 시작했다. 화폭에 등장하는 '엄마'는 장동문 자신으로, 그가 가꾸는 정원은 화목한 가정이자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망, 염원을 상징하는 이상향적 공간이다.

칠하기 나성숙(71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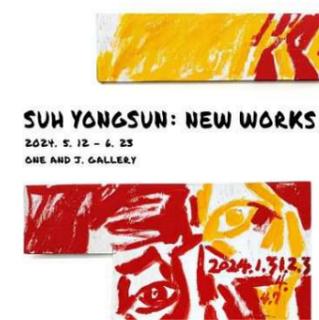
나성숙 동문이 참여한 초대전 '칠하기'가 지난 6월 5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이스 금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 9인(김정혜, 김혜진, 박경화, 배성미, 염미령, 윤혜정, 송난영, 심은주, 정재원)은 나동문이 운영하는 옷칠학교 서로재에서 공부한 이들로, 각자 다른 직업과 배경, 경험을 옷칠 작품에 녹여내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스페이스 금채 곽순화(72응미) 관장은 작년 청주비엔날레에 출품한 나동문과 서로재 멤버의 단체작 '우리 서로 다리가 되어'를 보고 초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나동문은 모교 응용미



술과를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서 교수로 일했다.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힘든 시기에 옷칠이라는 새로운 꿈으로 슬픔을 이겨냈다고 말한다. 그는 옷칠 작가 전용복 선생으로부터 옷칠을 배웠고, 2006년에 북촌에 한옥을 매입, 아트센터 봉산재를 열고 옷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현재는 북촌한옥 마을 기반의 북촌아트센터와 황칠 전시공간 '봉산재', 옷칠 교육 공간 '서로재'를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New Works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의 개인전 'New Works'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압구정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열렸다. 서동문은 1980년대부터 인간 본연에 대해 탐구하며 40여 년간 왕성한 작업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여러 시간을 축적하면서 감각해오던 현대 도시(서울, 뉴욕, 베이징, 파리)의 정서, 그리고 그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작가 자신의 모습(자화상)을 더욱 폭넓게 바라본 시선을 통해 그려낸 신작을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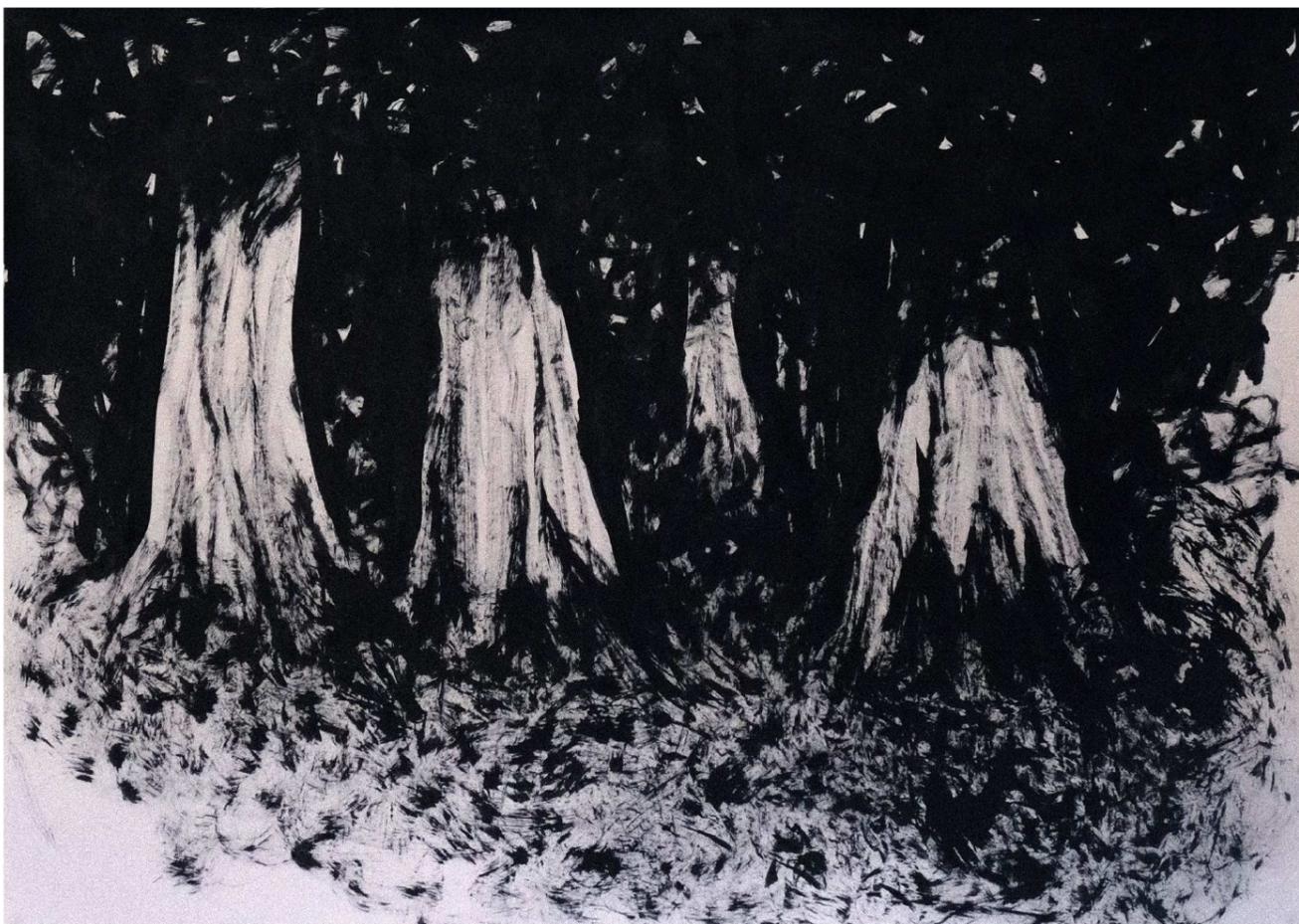
선보였다. 서동문은 그동안 특정 한 장면을 회화에 담는 것에 집중했던 반면, 근래에는 도시와 사람들을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폭넓게 관찰하는 태도를 회화에 더한다. 서동문은 본인에게 익숙한 환경인 작업실을 떠나, 종종 해외에서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미국 뉴욕에서 3개월간 머물며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을 준비했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의 즐거움 정경미(83서양)

정경미 동문의 초대전 '그림을 그리는 것의 즐거움'이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남구 갤러리PaL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정동문이 한국에서 여는 첫 번째 전시이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69점의 그림은 정동문이 수도원에서 머물며 완성한 작품이다. "좀 많이 힘든 가을, 겨울, 봄을 보낸 후 아주 무더운 여름 날" 너털너털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들어간 수도원에서 그는 짐도 풀지 못하고 싸인펜을 뽑아들었다. 작업 여행 및 레지던시 시작 전 매우 꼼꼼히 준비하던 작업 설계도와 시간표를 내려놓고 그는 1cm의 사각형 하나를 그렸



다. "이어 800여개의 정사각형과 함께 잔잔한 즐거움이 솟기 시작"했고, 이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을 "휴머니즘을 연구하는 즐거움"이라고 정했다고 그는 작가노트에서 회상한다. 모교 서양화과에서 공부한 정동문은 파리로 건너가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계속 파리에서 머물며 작업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한국에서 처음 하는 전시가 즐거움이 바글대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즐겁다며, 그러한 즐거움이 번지고 번져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으로 남겨지길 바란다고 전시를 개최하는 마음을 밝혔다.



정경미 초대전

그림을
그리는 것의
즐거움

2024.7.16-8.10

갤러리 PaL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4길 21

후원광고

서도호와 아이들 아트랜드 서도호(81동양)

서도호 동문의 개인전 '서도호와 아이들 아트랜드'가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서 서동문은 7년 동안 런던의 집에서 두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용 모형 점토로 만든 복잡하고 환상적인 생태계 '아트랜드'를 선보였다. 아트랜드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으며, 그곳만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은 이곳의 생물들에게 지구와는 다른 성장 주기와 성장 조건을 가져다주었다. 서동문은 전시장을 방



문하는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아트랜드의 제작과 확장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재활용 용기의 사용을 포함해서 서동문과 그의 가족이 만들어 놓은 기초 토대를 기반으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상상력 뿐 아니라 아트랜드의 다양한 생물 종에 근거하여 새로운 요소들을 아트랜드에 자유롭게 덧붙일 수 있다.

꿈꾸는 룡키 채혜선(82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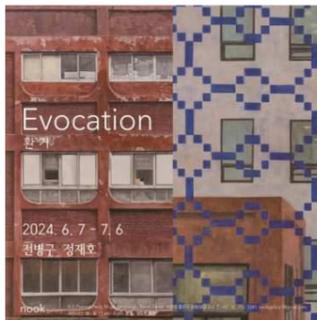
채혜선 동문의 개인전 '꿈꾸는 룡키'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종로구 테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채동문에게 작업이란 일상적인 장면에서 포착된 순간과 감정을 'painting'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나 이미지에서 받은 느낌을 표현한 작업들을 선보인다. 특히 많은 영감을 준 것은 영화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Mrs. Harris Goes to Paris)이다. 영화에서 청소부인 해리스는 우연히 보게 된 디올 오프 꾸뛰르 드레스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한다. 채동문은 감히 꿈꿀 수 없던 일을 이루어 나



가는 해리스의 모습을 보며 인간의 아름다움과 송고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인간은 꿈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영화에서 얻은 깨달음과 위로는 작업에서 마주치는 고민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꿈에 도전하고 작업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채동문은 이러한 경험을 이번 전시작에도 등장하는 자신의 페르소나, 강아지 룡키를 통해 표현하여 작품을 보는 이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한다.

Evocation 환 기 정재호(90동양)

정재호 동문과 전병구 작가의 전시 'Evocation 환 기'가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종로구 누크갤러리에서 열린다. 정동문은 건물들의 표면에 스며든 개인과 집단의 '삶의 체취'를 포착해 한지와 캔버스에 사실적인 그림으로 기록한다. 반면 전병구 작가는 작업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친 장면의 감정이나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전시는 두 작가의 그리기에 대한 고민을 공감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정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건물과 오래된 사물들, 손의 동작을 이전의 방식보다 좀 더 사



실적으로 그려 보여준다. 정동문은 아파트를 처음 그렸을 때 낡은 건물의 남루함, 재개발이 될 수 있겠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거칠게도 그렸지만, 물성 그 자체로 아주 정직하게 그려냈을 때 오히려 섬세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등에서 13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세종대학교 회화과 한국화 교수로 재직 중이다.

美妙: nuance 박현주(87서양)

박현주 동문과 윤종주, 이환권 작가의 3인전 '美妙: nuance'가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가로수길 예화랑에서 열린다. 지각이 포착한 사물이나 사태를 인식이 잡아주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상태, 애초의 지각에 대한 신뢰에 약간의 흔들림이 일어나거나 틈이 벌어지는 경우를 '미묘'라고 한다. 미묘는 우리를 새롭고 낯선 미적 경험으로 이끈다. 이번 전시는 3인 작가의 작품으로 이 미묘함을 보여준다. 빛을 화두로 작업하는 중견작가 박동문의 작품



과 캔버스에 여러 색채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독특한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윤종주 작가, 사람의 몸과 사물의 몸통을 실제보다 길거나 얇게 아니면 납작하게 만들어 묘한 착시효과를 주는 조각가 이환권 작가의 작품들은 감상자에게 낯설고 새로움을 제공하여 시선을 잡아당긴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동경예술대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빛의 그림'(2022, 예화랑, 서울) 등이 있다.

Hyunjoo Park
Jongju Yoon
Hwankwon Yi

美妙: nuance
아름답고 묘하다.

2024.06.22-07.20

GALLERY YEH
예화랑, 서울시 강남구 가로수길 73 T 82 2 542 5543 월-토요일 10: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후원광고

당신은 어디로 가시죠? 강호성(02동양)

강호성 동문의 개인전 '당신은 어디로 가시죠?'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대문구 아트레온 갤러리에서 열렸다. 강동문은 어린 아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한다. 그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진 속 부자연스러운 의상이나 배경은 대체되고 삭제되어 결국 하나의 인물로 구성된 동화적 판타지가 만들어진다.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때, 사람들은 방향하고, 불안과 우울감을 느낀다. 강동문에게 가족은 그런 시기에 자신을 위로해주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존재다. 강동문은 회화의 아름다움이 그것을 제작하는 이



의 체취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비단위에 수차례 붓질로 안료를 올리고 축적하는 과정은 마치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과 같다. 하나의 붓질 없이는 온전한 그림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내딛는 한 걸음 없이는 다른 공간에 닿을 수 없다. 전시는 목적 없는 행진 같은 매일을 걷는 이들에게 던지시 던지는 질문 같다. '어디로 가세요?', 자신이 걷는 길의 의미를 구하기 위해 강동문 스스로 던진 이 질문에 대답처럼 내놓는 본전시는 감상자에게도 '당신은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다.

결: 일상으로부터 허승희(03동양)

허승희, 박서희(09디자인) 동문과 하지훈 작가의 전시 '결: 일상으로부터'가 지난 6월 7일부터 24일까지 강남구 아르떼케이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국내외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회화의 소재로 사용하는 허동문의 그림, '조선백자의 현대화'를 이야기하는 박동문의 도자 작업, 그리고 한국 전통 가구를 현대의 쓰임에 맞게 재해석하는 하지훈 작가의 가구 작업을 선보인다. 아르떼케이는 전통적인 공예품을 동시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세 작가의 작업을 "공예와 예술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



명한다. 허동문은 조선시대 백자와 연적을 캔버스에 옮겨 그리는 작업을 통해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한다. 문화재 복원 모사를 진행하는 연구자이기도 한 그의 작업은 고증과 현대적 재구성 사이에 위치한다. 박동문은 형태와 장식적으로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아 오래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조선백자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의 도자기는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었음에도 조선백자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인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유지한다.

Salty Edge 기민정(05동양)

기민정 동문의 개인전 'Salty Edge'가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성동구 갤러리카비넷에서 열린다. 기동문의 작업은 상당 부분 매체(material), 즉 재료와의 관계 속에서 상정된다. 주로 사용하는 한지와 먹의 예민하고 섬세한 특성이 요구하는 재료에 대한 긴밀한 이해와 소통 때문이다. 그는 마치 영매 (medium)처럼 날카로운 날붙이(edge) 혹은 경계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며 연약하고 가벼운 이미지를 원초적이고 생생한 회화 언어로 치환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 시리즈는 감정을 강박적으로 정제해 오던 그간의



작업과 다르게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감정을 드러내고, 날카롭고 정돈되지 않은 채로 속도와 에너지를 강조한 선(線)의 운용을 보여준다. 이렇듯, 보다 날 것의 심상(心象)을 선으로 구현하는 실험적인 접근은 기동문의 작업적 지평을 확장한다. 기동문은 이번 작업의 전단계에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직접 낭독하고 녹음하여 그것을 듣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기존의 작업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적은니가내앞에와서있는거다 유현경(05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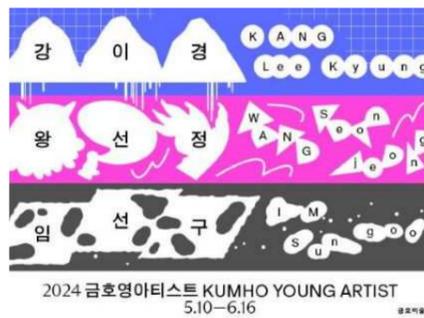
유현경 동문의 개인전 '기적은니가내앞에와서있는거다'가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여주미술관에서 열린다. 본 전시는 2024년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작을 포함한 유동문의 작품 24점을 소개한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동문은 특유의 회화 언어로 인물과 풍경을 포착한다. 빠른 붓질로 캔버스에 옮긴 인물과 풍경은 마치 그리다 만 것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붓질 같기도 하다.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관계 맺고 바라보며 느끼는 인상과 감정을 표현한 작업은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시명 '기적은니가내앞에와서있는거다'는 유동문의 작품에서 차용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극적인 경험으로서의 만남의 흔적은 오랜 자취를 남기는 것이기에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유동문은 말한다. 여주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자의 기적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시와 더불어 지난 5월 3일에는 아티스트 토크가 열려 작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24 금호영아티스트 2부 강이경(07서양)

강이경 동문이 참여하는 전시 '2024 금호영아티스트 2부'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금호미술관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금호영아티스트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작가를 선정하여 개인전 개최를 지원해 오고 있다. 전시 '2024 금호영아티스트'는 2023년 제21회 금호영아티스트 공모에서 선정된 작가 6명 각각의 개인전으로 2부에 걸쳐 구성되었다. 강동문은 도시공간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와 표면 아래 숨겨진 세계를 탐



색하고 이를 다양한 시각 언어로 실험한다. 그는 GPS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서 버려진 공간 혹은 지하세계의 암흑물질처럼 현실 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회화와 판화, 설치 작업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등의 분야와 협업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공간적 사유와 순환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 (틸데, tilde) 김혜미(06서양)

김혜미 동문과 노우찬 작가의 전시 '~ (틸데, tilde)'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강남 C-SQUARE에서 개최되었다. '~ (틸데, tilde)'는 중세 서양에서 필사를 할 때 긴 단어를 축약하기 위해 생겨났다. 스페인에서는 음절의 강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기간이나 범위, 그리고 ~뒤에 다른 말이 덧붙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물결표와 혼용되기도 한다. '~'의 기호적 기능을 통해 창작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이번 전시에는 두 신진 작가의 작업에 대한 고민과 태도가



담겨 있다. 김동문은 창작의 과정을 피난처와 긴 여행에 은유하며, 그 사이에서 발견되고 파생되는 여러 사유를 판화와 목공예 작업을 통해 드러낸다. 노우찬 작가는 쏟아지는 정보로 인해 스스로 사유할 기회를 잃어 세상을 상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회화가 작가와 관객 사이에 오가는 무언의 대화로서 온전히 작동하게 하기 위해 익숙한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노래하는 포말, 호흡하는 고요 한재석(10조소)

한재석 동문과 변지훈 작가의 2인전 '노래하는 포말, 호흡하는 고요'가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가 6개월 동안 부천아트벙커B39 공간에 머물며 작업한 결과이다. 공간의 구조와 규모, 분위기가 작가에게 닿아 온전히 작품으로 재해석되어 표현된다. 변지훈 작가는 높이 39m 벙커에서, 한동문은 과거 소각 집진기가 존치된 배기가스처리장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한동문은 스피커와 마이크 등 직접 수집



하고 제작한 음향 장치를 사용해 조각과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피드백 사운드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 멀티 채널 시스템에 적용하고 자연에서의 물질순환을 모사하고 이를 감상하는데 목적을 둔다. 오디오 피드백은 말 그대로 입력인 마이크와 출력인 스피커가 서로 연결된 상태로,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증폭 값을 올리면 기기에 해당되는 공명 주파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Long Play Record 손유진(13조소)

손유진 동문과 이연정 작가의 전시 'Long Play Record'가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레이프로젝트 서울에서 열렸다. 전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연정 작가와 베를린에 머무는 손동문 사이에서 이메일을 매개로 이루어진 공동 작업을 보여준다. 이연정 작가는 자신이 사는 해방촌을 비롯하여 시흥시 배곧, 연남동, 압구정과 같은 공간을 다니며 스스로 감각한 세월의 흔적들을 촬영하고 손동문과 공유했다. 신체와 정물의 이미지를 오가며 몸이 가진 유한성을 다루어 온 그는 공간에 남은 세월의 흔적에서 살아있는 피부를 연상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피부'에 집중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실재하는 물성으로 옮긴다. 한편 손동문에게 글과 함께 전달된 사진은 실제로 감각하지 못한 장소의 흔적이 되어 손동문의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옛 것에 대한 공통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두 작가는 이메일로 소통하며 같은 이미지와 감각을 공유하려 애쓴다. 그러나 긴 호흡의 '말'이 쓰이고 읽히는 과정에서 각자의 해석은 이메일의 시간만큼 지연된다. 오해와 의미의 탈락을 수반한 이러한 지연을 중간지대로 두고 두 사람이 만들어낸 새로운 의미를 이번 전시에서 선보였다.

웃음을 낳는 작은 곡예사 김륜아(15서양)

김륜아 동문의 개인전 '웃음을 낳는 작은 곡예사'가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서울 중구 더소소에서 열린다. 전시를 위한 글에서 김동문은 표현주의 회화의 희극성, 그리고 화가의 욕망과 자아에 대한 사유를 드러낸다. 그는 앙리 베르그송의 책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하여'를 끌어와 웃음(희극성)을 설명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웃음의 핵심은 인위성이다.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 기계처럼 다뤄지거나, 생명이 기계로 위장할 때 그 대상은 우스워진다. 한편 자연물인 인간이 본능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행위를 다른 자연물들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웃긴 일이다. 그러므로 회화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김동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표현주의 회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표현주의 화가가 우스운 존재가 되기를 자처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사회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연물이라는 인간 존재 자체의 희극성, 그리고 자신이 본 세계를 표현하려는 본능적 욕망이 '순진한 익살꾼'인 화가를 만든다.

1307 서지원(18동양)

서지원 동문의 개인전 '1307'이 레인보우큐브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모든 이야기는 이 방, 1307호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적었다. 피치 못할, 만연한, 혹은 당연한 부재와 상실, 도처의 불안과도 같은, 모호한 말들을 어간 사이에 옥여넣으면서." 문장의 끝이나 앞에, 때론 자간이나 띄어쓰기 곳곳에 들어서기도 했던 어느 잔상들이 있다. 그러나 저 문장을 쓰기 시작하며 그것들은 아주 쉽게 종적을 감추었고, 명시할 수 없이 이름을 잃었다. 그곳엔 분명 어떤 슬픔, 어떤 고독과 같은 여타의 단어로 구태여 부를 수 있



는 감각들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불가피하게도 그것들을 무어라 불러야 할지를 잊는 것이다. 그것들은 더 이상 지나친 상태의 지표마저도 되지 못했다. 그냥 그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쉽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허풍. 그것들은 정말, 이야기일 뿐인 것이다. 붙이고 붙일수록 아주 손쉽게 벗겨져 나가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는 그러므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지지부진해진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 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봄햇살에는 초록이 있었다 정수연(18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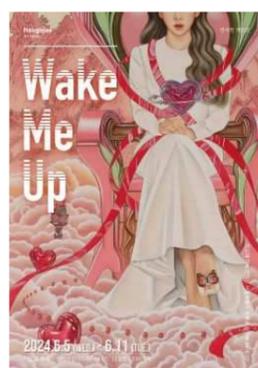
정수연 동문의 개인전 '봄햇살에는 초록이 있었다'가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경기 김포시 보름산미술관에서 열린다. 정동문에게 식물은 유년 시절 소꿉놀이 친구 같은 존재이자,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매개체였다. 그는 어린 시절 베란다에 다양한 식물을 심어 꾸며놓은 정원을 기억한다. 아무도 없는 집 베란다 정원에서 오늘은 햇빛을 잘 받았는지, 물은 잘 먹었는지 대화를 하며 역할 놀이와 같은 가상의 무대를 펼치곤 했다고 정동문은 추억



한다. 희미해진 서로 다른 기억의 조각들은 이질적으로 결합되거나 때로는 기억이 분화 및 변형되어 새로운 기억의 돌연변이에 가까워진다. 그는 따뜻한 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정원에서의 기억 조각을 노란색 입체 조형과 새로운 식물의 형상으로 조형화한다. 작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꽃과 나무가 합쳐진,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으로 생긴 식물의 형상 담고 있다. 정동문이 시들지 않는 영원함을 부여한 식물이다.

Wake Me Up 안서진(석19동양)

안서진 동문의 개인전 'Wake Me Up'이 지난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종로구 학교재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현대 사회는 보이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SNS 속 화려한 세상에서는 돈, 권력, 명예, 애정표현, 아름다운 외모와 같은 것들이 행복의 지표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일상을 지배한다. 안동문은 이러한 욕망 그 자체가 현대 사회의 신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간의 5가지 욕망(돈, 권력, 명예, 사랑, 건강)을 아이돌 가수의 모습을 통해 상징되는 신으로 표현한다. 아이돌은 미디어 속에서



거의 완벽한 존재로 보여지며, 아름다운 외모와 인기는 그들을 현대의 신으로 승격시켜주는 요소가 된다고 안동문은 말한다. 이러한 아이돌-욕망의 신을 그리는 과정에는 어진(御眞) 제작기법이 적용됐다. 그는 그림이지만 왕과 동일한 위상을 가졌던 어진 제작 과정과 현대 아이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사성을 읽어낸다. 동양철학의 오행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현대적 욕망의 신은 완벽한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 우리에게 깊은 공허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7월의 전시



에체 호모

조영동(53회화, 1933-2022)
3.23-7.28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흰 : 원형

최만린(54회화)
3.28-11.2
최만린미술관



생명의 연가

김병중(74회화)
4.2-12.31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O : 에릭 오 레트로스펙티브

에릭오(오수형02서양)
4.25-12.31
제주 하우스오브레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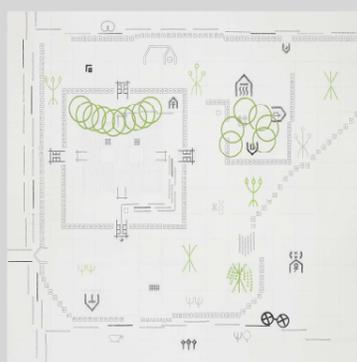
오치균미술관 개관전 1부

오치균(76회화)
5.2-9.29
오치균미술관



기적은니가내앞에와서있는거다

유현경(05서양)
5.8-7.28
여주미술관



하늘과 땅과 곡식

송윤주(94동양)
5.16-8.30
OCI썬더버드소공드림점



Skin

노진아(94조소) 외 1인
5.18~8.11
아트스페이스 올림



봄햇살에는 초록이 있었다

정수연(18동양)
5.21~8.11
보름산미술관



여래의 바다

김기홍(75서양) 외 1인
5.31-11.30
법륜사 불일미술관



장혜용 초대전

장혜용(69회화)
5.22-7.22
갤러리젠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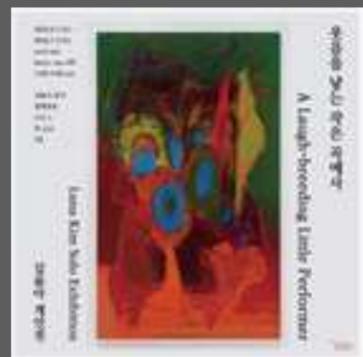
콘크리트 유토피아

김지은(95서양)
6.1-7.28
산속등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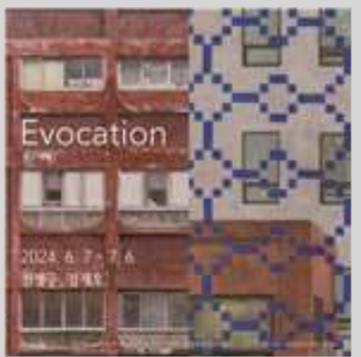
순간의 지속

이용덕(77조소)
6.5-7.7
토탈미술관



웃음을 낳는 작은 곡에서

김륵아(15서양)
6.7-7.5
더소소



환기

정재호(90동양) 외 1인
6.7-7.6
누크갤러리



가을 짐승의 털끝

허진(81회화)
6.8-7.7
갤러리 이레



공룡상화#1 신장개업

이예원(13동양) 외 5인
6.8.-7.30
소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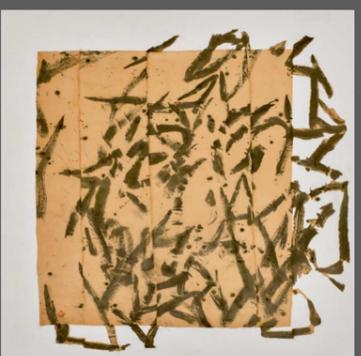
美妙: Nuance

박현주(87서양) 외 2인
6.22-7.20
예화랑



그림을 그리는 것의 즐거움

정경미(83서양)
7.16-8.10
갤러리 Pal



석재문화상 수상작가전

정종해(67회화)
7.23-8.4
대구문화예술회관